

산업체 근로여성의 건강상태와 문제점

동국종합전자(주) 보건담당자 김 수 자

1. 서 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은 곧 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본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공업기술의 발달로 그 양상이 다양복잡하고 유해물질의 제조 및 대량사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능력을 감퇴시킬 뿐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병이나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등장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재해가 급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나아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중요성과 인명존중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사

업주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사업장에는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사), 보건담당자(간호원·간호보조원)를 의무적으로 두어 실질적인 보건관리업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보건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1년에 1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산업보건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다.

필자는 보건담당자로서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며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보건문제를 파악 기록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매일 보건일지를 작성하여 결근율을 낮추는 노력도 보건담당자의 책무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여성근로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제 2의 모성세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보건담당자로서 사업장 일선에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관찰된 근로여성의 보건문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본 론

1) 산업보건의 목적

기업은 3M(인력MAN, 자재MATERIAL, 자금MONEY)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3대 요소중 인력이 가장 중요함은 기업이 인간에 의해 경영되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능률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위해 사업장에 있어서의 산업보건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담당자는 근로자들에게 건강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건강이란 일단 상실되면 회복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가정, 사회의 손

실이므로 사전에 방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산업보건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2) 근로여성의 형태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자동차 스테레오 및 라디오(Car Cassette With Radio)를 생산하는 전자계통의 회사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700여명이 여성근로자이며 그의 75%인 400여명의 여성이(대부분 타지방에서 모인)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은 보건담당 및 사감을 겸직하면서 함께 생활하며 400명의 근로여성들을 통해 상담 및 집단적교육, 혹은 개인면담과 개개인의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조사 결과를 얻었다.

(2-1) 연령

연령분포는 17세-18세 27.5%, 18세-21세가 60%, 21세-24세 10%, 24세-29세가 2.5%이다.

(2-2) 학력별 분포

국졸후 입사자 5.3%, 국졸 및 중학교 중퇴자 23%, 중졸 후 고졸중퇴 3.5%, 고졸후 및 대학중퇴 55%, 구미여상 야간학생 6%, 방송통신고등학교생 5%,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1%

(2-3) 종교

기독교인 20%, 천주교 3%, 불교 46%, 유교 4.3%, 기타 여호와 증인 및 통일교 2%, 무교 43%.

(2-4) 사업장 환경

우리회사는 공기가 비교적 좋은 낙동강변옆 구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보일러·소방시설 등 환경개선이 잘되어 있어 여성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쉴수 있는 곳이다.기숙사는 한 방에 3-4명이 기거하며 각 방마다 실장이 있어 질서와 화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당은 1,000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영양사가 상주하여 식생활개선과 영양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고 있다.

3) 보건활동에 관한 사항

(3-1) 건강관리

가. 일반건강관리(General Health Control)

전반적 건강관리에 있어서 우선 집단체임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와 유기적 협조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이밖에 봄·가을 2회에 걸쳐 체력검사·병리검사·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찰한다.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후로는 구미 순천향병원 건강관리과에서 적극 협조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 결핵관리(Tuberculosis Control)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결핵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핵을 숨기고 은밀히 치료하려는 산업근로여성들이 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실시한 정기 검사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통보하여 의사에게 의뢰,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및 수면으로 과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다. 기생충 관리(Parasite Control)

1년에 한번 단체로 실시한다.

라. 응급처치(Emergency Care)

기숙사내 양호실이 있어 구급처치에 필요한 비상약 및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며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와 더불어 순천향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

마. 건강상담(Health Counsel)

건강상담은 산업보건사업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며 건강검사와 함께 근로여성들에게 보건지도 및 보건관리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상담은 근무중에 갑자기 심신의 이상을 느껴 상담을 요청해오거나, 상사가 관찰하여 이상이 있다고 의뢰하거나, 일상생활중 본인 스스로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3-2) 환경위생관리

가. 위생관리

방역대책으로 월 1회 민간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장·기숙사 및 식당, 기타지역에 살충 구서 살균소독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주 1회 화장실 소독과 함께 정기적인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할 곳

은 개선한다. 음료수는 항상 더운 끓인 보리차를 공급하고 식당은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식기류를 자비소독하고 있다.

나. 시설환경관리

환기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기온·습도 환경조건이 알맞은 곳인지 채광·조명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명기구에 손실이 없는지 본다. 청결·청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지, 천장·벽·창·마루 등에 심한 손상은 없는지, 유해물 부패악취가 없는지, 배수는 잘되는지, 기타 등등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에도 힘쓴다.

(3-3) 보건교육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자유개방정책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근로청소년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산업체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등장되고 있다. 대부분 산업체 근로여성들은 학업을 충분히 마치지 못한 사춘기의 여성들이거나 혹은 성장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복잡한 변화속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건강문제는 잇고 살게 된다. 모든 병은 발생하면 치료가 힘들다는 문제는 다 알지만 건강에 무관심하기 일수이다. 우선적으로 작업에 있어서 건강을 저해하는 인자들을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노동력의 상실을 막을 수 있고 건강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건지도를 함으로써 손실된 노

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요즘 현저히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 행위도 철저한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지에서 오는 탈선행위의 많은 사례가 있으며 더구나 여성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있어 보호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모자보건교육을 받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집단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은 연소여성근로자들 보다 문제발생이 적은 것을 보면 각 산업체는 고려하여 기숙사를 지어 생활토록 하는 것이 제반 문제발생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건강문제 및 해결방법

(4-1) 근로여성의 건강문제 파악

보건일지를 통해 현장에서의 개별건강 및 근무상태와 작업환경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다. 근무중에 막연한 두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거부하고 약을 달라는 근로여성을 상담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관찰될 수 있다.

안색이 좋지 않은지, 몸이 단정치 않은지, 태도나 언어행동에 있어 불안하거나, 묻는 말에

성을 잘 내거나 하는 등 이상한 언동이 없는지, 이런 점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을 때의 원인을 보면

- 육체적 정신적건강의 이상
- 작업에 대한 부적응
- 상사의 지도나 조직운영에 대한 불만
- 동료간의 인간관계에 불화

- 본인의 성격·교양·학력·성장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
- 일하는 대우에 대한 불만
- 가정문제

보편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은 자기 문제가 많아서 병으로 호소하는 원인이 제일 많으며 아래와 같은 증상이 많다.

○ 막연한 두통과 항상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하다.

○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여 호흡기계통에 이상을 호소

○ 소화가 되지않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소화기계통

○ 여성근로자들은 한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통을 괴로워한다. (현장에는 생리수당과 생리휴일이 있다)

이렇게 일반상황을 들 수 있으나 하루의 휴식과 수면으로 일단 피로를 회복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4-2) 보건담당자가 보는 문제점

1982년도에 400명 근로여성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보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해

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몸이 아파도 무관심하며 심하면 마이싱을 먹는다. (마이싱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기때문) 62%

○ 경제문제때문에 참는데까지 참고 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다. 19%

○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으면 자가 치료하고 싶다. 8%

○ 약국에 가본다. 7%

○ 병원에 간다. 5%

1982년 이후 본격적인 질병예방과 보건상담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어 이제는 가급적 건강

담당자와 상담한 후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조치하며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용된 약선전의 홍수속에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빛어지는 약의 남용이 심각하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중 하나가 약의 남용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사전교육과 함께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면 건강문제는 차차로 해결된다고 본다.

(4-3) 여가활동

작업장에서 하루종일 고정된

자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가선용이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가벼운 운동을 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권장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체력단련의 기회로 사내 체육대회 등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사업장의 기숙사에서는 아침으로 꼭 구보와 체조를 실행하며, 사내에서는 컴퓨터강좌, 분임조활동, 꽃꽂이, 요리 등 각종 교양 및 취미 강좌와 가족계획교육등을 실행하고 있다.

현장일기

“따뜻한 마음속에

오가는 정이”

(주) 금성사 오디오 사업부 의무실 김 월 래



친구의 소개로 처음 발을 디딘곳은 규모가 다소 큰 하얀 4층건물(금성사), 마음 한구석이 소녀처럼 떨리면서 면접보던 어느날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금성사와 인연을 맺은지도 어느덧 4년째 접어들었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사실에 그동안 시간들이 결코 헛되어 보낸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500명의 건강관리를 Check 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현장은 10평 정도의 아담한 의무실에 2개의 침대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약을 갖추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곳으로 넓지는 않지만 건물 중앙에 자리잡은 아늑한 분위기는 나의 기분을 언제나 밝게 해주고 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환경관리가 잘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욱 환경개선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현